

##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

최기은, 106호 백제실 18:00~18:30

고대 국가에서 금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때는 4~5세기부터이며, 이 때 금제귀걸이 등 금속공예품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백제 금제품의 제작 특성’을 주제로 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위해 ‘백제 금제품의 성분 조사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분석 대상 유물은 529년을 하한으로 하는 웅진기 왕릉인 무령왕릉 출토 금제품, 6세기 전반 웅진기 중앙 귀족 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공주 금학동 고분군 출토 금제품,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한성기 지방 재지세력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천안 용원리 고분군 출토 금제품 등 70여 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령왕릉 금제품의 금함량은 91.5~99.9%의 분포범위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왕과 왕비의 관장식, 귀걸이, 목걸이 등 주요 착장품에는 금순도가 매우 높은 재료(Au 99% 내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금의 화학조성이 대개 40% 내외의 은을 함유한다는 점에서 그 당시 금제품의 제작에 있어 ‘정련’ 공정을 통한 순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령왕릉 출토 금제품의 분석결과에 반해, 비교 자료로서 공주 금학동 고분군 출토 금제품의 금함량은 86~92%의 분포범위를, 천안 용원리 고분군 출토 금제품의 금함량은 72~86%의 분포 범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시기별로는 편년이 올라가는 천안 용원리 출토 금제품의 경우 금순도 면에서 제일 낮은 반면, 공주 무령왕릉 및 금학동 출토 금제품의 경우는 금순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동시기로 판단되는 무령왕릉과 공주 금학동 출토 금제품의 금순도가 차이 나는 것은 계층, 신분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여겨지며, 이는 금이란 금속의 희귀성 및 상징성을 고려해 본다면 금제품의 순도에 있어서 신분상 위계의 구분이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그림1. 무령왕릉 금제관장식



그림2. 형광X-선분석



그림3. 전자현미경분석

제71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5일)

##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 II부. 예禮로써 구현하는 바른 정치 -

임혜경,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의식儀式의 궤범軌範’ 의궤는 조선시대 중요 국가 행사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행사 매뉴얼은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원리와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회적 가치를 담은 국가 경영 지침서입니다.

의궤는 국가 의례나 행사에서 모범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모범적인 의례란 바른 예법을 잘 따른 의례입니다. 의궤는 그 예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의 경험을 모은 것입니다.

의례에서만 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왕이 추구해야 할 바른 정치도 바른 예법을 따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효孝나 충忠, 신의信義 같은 사회적 덕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禮입니다. 왕이 먼저 바른 예를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로써 구현하는 바른 정치입니다.

바른 예법으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신하와 백성들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과 왕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례가 각별하였습니다. 신의信義에 기반을 둔 군신관계를 정립하고, 백성들과 고락苦樂을 함께하려는 애민愛民의 자세를 기르는 의례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예법禮法으로 왕조의 정통을 세우고 백성을 아우르는 품격의 통치, 그것이 의궤에 담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궤는 후세後世를 위한 모범적 선례先例이자 영구히 전해야 할 왕조의 정신적 문화 자산입니다.



<분무녹훈도감의궤>



<효명세자 책봉 교명·죽책·옥인>



제71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15일)

## 고구려 기와의 이해

윤윙희, 105호 고구려실 19:00~19:30

고구려는 일찍이 국내성國內城(현 중국 길림성 집안현 일대)에 도읍이 있던 1세기 무렵부터 기와를 사용하였습니다. 중국 사서인 『구당서舊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의 고구려 관련 기록에 “주거하는 곳은 반드시 산골짜기에 있으며, 모두 띠와 풀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고, 오직 절과 사당 및 왕궁, 관부에서만 기와를 쓴다(其所居必依山谷, 皆以茅草葺舍,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用瓦).” 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 기와는 왕실이나 귀족, 승려 같은 특수 계층의 전유물로서 궁궐이나 관청, 사찰 등 정치적, 종교적 성격의 건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구려 기와의 종류는 크게 기본기와(암기와, 수기와), 막새기와(수막새, 암막새, 반원막새), 서까래기와, 마루기와, 특수기와로 구분합니다. 지붕 전면을 덮어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암기와, 수기와와 처마 끝을 마감하는 막새기와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며, 연구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암기와와 수기는 기와 전용 제작 도구인 와통瓦桶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백제나 신라 영역의 초기 기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무와통기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초기부터 발달된 기와 제작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통의 흔적은 주로 암기와 내면에 세로 방향의 요철凹凸면으로 나타나는데, 세로로 긴 나무판인 통쪽을 둥글게 연결해서 와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통쪽와통’이 널리 사용된 반면 신라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백제에 비해 좁은 통쪽을 사용하여 삼국 간에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와는 지붕에 올릴 때 서로 잘 포개지도록 겹쳐지는 면을 깎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구려 기와에는 두 귀통이를 사선으로 자르는 ‘귀접이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백제나 신라 기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막새 문양에는 장식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수막새의 초기 문양은 구름무늬[卷雲文]이며, 도교道敎를 상징합니다. 동시대의 중국 한漢나라와 낙랑樂浪의 수막새도 구름무늬인데, 고구려의 막새는 막새 테두리(周緣部) 형태와 표현 방식이 달라 독자성을 보여줍니다. 불교佛敎 도입(372) 이후에는 연꽃무늬[蓮花文]가 주류를 이루는데 크



게 돌출된 꽃봉오리 형태의 연꽃과 뚜렷한 구획선이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귀면무늬[鬼面文], 인동무늬[忍冬文]도 등장합니다. 평양 천도(427) 이후에는 연꽃의 양감이 낮아지고, 점차 구획선이 사라지면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연꽃과 다른 문양이 복합되는 표현 방식도 나타납니다. 5~6세기에 성장한 고구려와 중국 남북조의 여러 왕조의 교류를 보여줍니다. 7세기에는 연꽃무늬 대신 넝쿨무늬[蔓草文], 수레바퀴무늬[車輪文], 기하무늬[幾何文] 같은 새로운 문양이 나타납니다. 마치 초기의 구름무늬처럼 도교적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수당[隋唐]과의 전쟁 이후 귀족사회의 재편과 사상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평양지역은 집안지역에 비해 기와의 색깔이 적색[赤色]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백제나 신라의 회색 계열과 대비됩니다. 기와의 색깔은 산화[酸化]와 환원[還元]이라는 가마 안에서의 화학작용이 결정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기와 바탕흙의 성분도 영향을 끼치며, 의도적으로 주칠[朱漆]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고구려에 적색 기와가 많은 걸까요? 그 단서는 다음의 『삼국사기』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리왕 29년(서기 10)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싸웠는데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두고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黑北方之色, 北扶餘破滅之徵也).” 라고 한 내용과 대무신왕 3년(서기 20) 부여왕 대소가 붉은 까마귀를 보내왔는데 “검은 것은 북방의 색인데, 지금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고,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징표인데 그것을 얻었다(黑者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烏瑞物也, 君得而不有之).” 는 내용입니다. 추정컨대 오행설[五行說]에 따라 적색은 남쪽, 흑색[黑色]은 북쪽을 나타내는데,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건국과 밀접한 부여[夫餘]의 남쪽이라는 의식과 중앙의 황색[黃色]에 해당하는 중국에 대한 자주성이 기와의 색깔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 6. 연꽃무늬수막새(집안지역)



그림 7. 귀면무늬수막새(평양지역)

## 사비백제의 건축장식

정현, 106호 백제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에 전시된 주요 문화재를 살펴보며 백제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국사기』는 백제 문화를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백제의 문화재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소박한 그릇과 건물을 장식한 기와였습니다.

지붕의 용마루 양 끝에 올린 치미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건물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왕흥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한 쌍의 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흥사는 백제의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지은 왕실사찰로, 이 치미는 금당과 탑의 동편에 위치한 동건물지의 지붕을 장식했습니다. 백제의 기와장들은 크고 무거운 치미를 빚고 굽기 위해 상부와 하부로 분리하여 제작했습니다.

백제의 연꽃무늬 수막새는 화려한 장식을 부가하는 대신 연꽃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여 고구려·신라 연꽃무늬 수막새에 비해 훨씬 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백제 웅진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한 연꽃무늬 수막새는 사비시기에 이르러 바람개비무늬 또는 민무늬로 다양해집니다.

부여 외리 절터에서 발견한 무늬벽돌은 백제의 수준 높은 기와 제작 기술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외리 절터 바닥에서 총 8종류의 무늬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늬벽돌에는 백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상상 속 동물인 용과 봉황, 그리고 귀신의 얼굴 등이 입체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 산수무늬벽돌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해외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에 가장 많이 출품된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흥사 절터 치미



백제 연꽃무늬 수막새



산수무늬 벽돌